

韓, 1분기 성장률 OECD 국가 중 최저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기대비 -0.34%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라트비아(-0.30%), 멕시코(-0.20%), 노르웨이(-0.07%)와 함께 역성장한 국가에 포함된 것이다.

1분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폴란드(1.50%)였다. 폴란드(1.40%), 이스라엘(1.28%), 리투아니아(0.99%), 슬로바키아(0.93%)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주로 과

GDP 증가율 전기대비 -0.34% '역성장 국가' 포함

대외의존도 높아 미·중 무역갈등·브렉시트 등 영향

거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들이다. 이를 국가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미국(0.78%)이었다. 스페인(0.72%), 핀란드(0.60%), 포르투갈(0.50%), 독일(0.42%)도 플러스(+) 성장을 했다.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의 1분기 성장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 경제·문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우리나라의 수출은 13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1년 전보다

13.6% 줄어든 20억1000억달러에 그쳤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컨퍼런스 발표자로 나서 "최근 몇 달간 수출이 주춤했고 올 1분기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면서 "한국은 올해~내년 잠재성장률(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뉴스스

"취업시장 비정상 1위 과도한 스펙 쌓기"

사람인 조사 결과···82.7%, 비정상적인 행동한 경험 있어

취업시장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현상은 '과도한 스펙 쌓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성인남녀 968명을 대상으로 '현재 취업시장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과도한 스펙 쌓기(52.7%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직무적합도가 채용 평가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무와 관련이 없는 스펙을 무작정 쌓는 것을 불필요한 행위로 보고 있는 것.

이어 ▲공무원 시험 을인(40.4%) ▲대기업만 바라보며 장기 구직(36.4%) ▲고학력 구직자 증가(31%) ▲자소서 대필, 자소설 작성(24.8%) ▲취업 포기, 구직 단념자 증가(22.8%) ▲무리한 취업 사교육(20.6%) ▲울드루기 등 경

력 보유자 우대(17.7%) ▲문자마지원(16.8%)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선택한 항목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나이적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4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서'(39.8%), '뜻밖의 목적이 없어 보여서'(33.1%),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서'(23.9%), '실제 취업에 필요하지 않아서'(21%) 등을 이유로 들었다.

비정상적인 부분에 매달리는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40%)는 의견과 '공감이 간다'(38.1%)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구직자의 82.7%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시장에

취업시장 비정상 TOP5

성인남녀 968명 설문조사 [자료제공: 사람인]



saramin

서 비정상 입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경험한 비정상 행동으로는 ▲문자마지원(36.7%,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과도한 스펙 쌓기(30.8%) ▲

구인·구직 미스매칭 확대(24.3%) ▲대기업만 바라보며 장기 구직(22.6%) ▲고학력 구직자 증가

(20.7%) ▲공무원 시험 을인(17.7%) 등을 한 것으로 답했다.

구직자들은 비정상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이유로 '안 하면 손해 볼 것 같아서'(37.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다른 방법을 몰라서'(36.6%), '다

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27.1%), '계속 털락하고 있어서'(26.6%),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서'(14.4%) 등의 이유로 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절반(49.9%)은 비정상입을 알지만 앞으로도 위의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스

국민 67.9%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 늘 것"

국민의 절반이 이상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앞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 울산, 경남 등 경상지역에서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최근호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분기별로 참여하는 전국 152개 지자체 일반가구 6680가구 중 67.9%가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공시가격 의견점수 절차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3월

19~31일 실시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거주자 응답률이 7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72.2%), 제주(71.4%), 대

(91.2%), 영등포구(90.0%), 마포구(87.2%), 동대문구(87.1%), 용산구(86.7%) 등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국토연, 전국 6680가구 설문조사···강남3구 응답률 90% 초과

구미·울산 동구 등 경상지역, 전셋값 하락 따른 역전세 우려 커

구(69.1%), 광주(68.2%), 경기(66.9%) 순이다.

시군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98.6%), 송파구(91.2%), 강남구

와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88.7%), 경기 과천(88.2%) 등과 대구 수성구(87.2%) 등이 상위권에 들었다.

한편 응답자 중 22.1%는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18.7%), 경기(23.5%), 인천(18.4%) 등 수도권지역과 대전(9.8%), 대구(13.7%), 광주(14.2%), 부산(21.7%) 등은 응답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어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41.3%), 울산(36.2%), 경남(34.0%) 등 거주민은 역전세를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경북 구미시(68.9%), 울산 동구(56.4%), 경기 평택시(52.5%), 경기 안산시 단원구(47.6%), 경북 포항시 북구(44.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뉴스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폐우는 한끼는 옛날 이야기"

편의점 프리미엄 먹거리 인기

5000원대 프리미엄 도시락·속 꽉 채운 김밥 대세

최근 편의점에서는 5000원대 프리미엄 도시락, 풍성한 토핑이 들어간 김밥이 인기다. 과거에는 싸게 한끼 때우는 데 의의를 둔 상품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먹는 식사로 단순히 저렴한 상품보다는 합리적 가격대의 일품 먹거리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GS25에 따르면 지난 1~19일 도시락, 김밥 카테고리 베스트 상품을 확인한 결과 도시락은 ▲경양식치즈박반도시락(4800원) ▲왕김밥상도시락(5500원) ▲진수성찬도시락(4900원) 순으로 약 5000원대의 프리미엄 도시락이 강세를 보였다.

김밥은 ▲정통왕김밥(3400원) ▲북은지 침치김밥(2200원) ▲삼양불닭&후랑크김밥(2400원) 순으로 일관된 품질과 고른 영양 섭취까지 고려한 고품질 먹거리를 합리적 가격대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거주자, 지방아파트 원정 투자 '활발'

작년 부산·대전 최다···수도권 대출규제에 지방 투자로 전환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아파트 시장에 서울 거주민의 투자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거주민이 매입한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는 4850가구로, 전년(4047가구) 대비 19.8%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584가구로 가장 많고 ▲대전 1418가구 ▲광주 7947가구 ▲대구 708가구 ▲울산 3461가구 순이다.

특히 부산이 전년(1299가구) 대비 21.9% 늘고 대전도 전년(1002가구) 대비 4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가 대구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지역내 6개 구와 기장군이 포함되었음에도, 지난해 대구·광주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승폭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원정 구매'가 꾸준한 이유는 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등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종부세상환비율(DTI) 등이 40~50%로 제한되는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이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을 받는다.

또 업계에서는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수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지역내 6개 구와 기장군이 포함되었음에도, 지난해 대구·광주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승폭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주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